

# 대한민국 건강도시 네트워크

이부옥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장/창원시 보건소장

## 1. 건강도시의 정의

- “건강도시는 시민들의 상호협조 하에 시민들이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하며,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도시이다.”(Hancock, T. and L. Duhl, 1988)

-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들은 높은 정치적 전령;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필수적인 현장에서의 활동들의 통합; 도시 건강 프로파일 및 지방 활동 계획의 개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적 연구 및 분석; 정보 공유; 매체의 관여; 지역사회 내의 모든 집단으로부터의 시각의 병합;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전; 지역사회 개발 및 인간 개발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국가 및 국제 네트워킹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건강도시 사업의 시작

1984년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열린 “Healthy Toronto 2000”이라는 워크숍 중 “보건 의료를 넘어서(Beyond Health Care)”라는 회의에서 건강도시가 처음 논의됨.

-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L. Duhl 교수는 도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요인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제안함.

## 3. 국내 건강도시의 역사

### 1) 시작

- 건강도시프로젝트는 1986년 초기부터 그 개념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었으나, 1998년 과천시에서 건강생활양식 중심의 보건소 수준의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함.

## 2) 확산

- 2002년부터 창원시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창원시와 함께, 서울특별시, 원주시, 부산진구가 2004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지구 건강도시연합회(AFHC)에 가입하게 되면서, 국내 건강도시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함.

- 2007년 4월 현재, 기 가입한 19개 지자체 이외에 많은 지자체가 가입을 준비 하고 있음(약 50 여곳).

- 한편, 2006년 국내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를 결성(초대 의장도시 : 창원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였음.

-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도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각 부처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도시포럼을 운영하였음.

## 4.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 1) 개요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는 2006년 9월 14일에 창립되었다. 초기 창립의장 도시는 창원시(사무국: 창원시 보건소)로서 국내 건강도시간의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 협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달성 및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함.

### 2) 회원

○ 협의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은 아시아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연합(AFHC)에 가입된 도시 및 자치단체, 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연합에 가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로 하며, 준회원은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민간부문/기업 등으로 구분함.

구 분	지자체	담당부서
광역시형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추진반 보건과 보건과
일반행정조직 중심 중소도시형	원주시 서산시	건강체육지식산업단 기획감사실
보건행정조직 중심 중소도시형	창원시, 진주시,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조직 중심 도시(구)형	부산진구, 도봉구, 강남구, 성북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보건소
보건행정조직 중심 농촌(군)형	금산군, 남해군, 연기군, 장흥군	보건소

○ 현재 19개 정회원과 2개의 준회원으로 구성

- 정회원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남구(서울), 성동구(서울), 도봉구(서울), 동작구(서울), 광진구(서울), 성북구(서울), 부산진구(부산), 원주시(강원), 창원시(경남), 금산군(충남), 남해군(경남), 연기군(충남), 진주시(경남), 서산시(충남), 전주시(전북), 장흥군(전남)

- 준회원 :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증진개발센터

### 3) 사업

-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문서 등 기초자료 분석사업
-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 협의회간 지원 및 정보공유체계 사항
-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5. 세계 건강도시 사업의 확대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국 주도로 1986년부터 건강도시시범프로젝트가 시작됨. 최초에는 11개의 유럽도시가 건강도시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유럽의 경우 30개국이상의 1,200여 도시와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

역적, 광역별 및 주제별 네트워킹을 통해 연계됨.

○ 서태평양 지역은 1980년대 이후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100여개 도시에서 도입되었음.

- 2003년 10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합회(Alliance for Healthy Cities, 이하 AFHC)이 발족되고 헌장을 승인함.

- 2004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칭시에서 제1회 건강도시연합회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중국 소주에서 제2회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도에는 일본의 이치가와시에서 제3회 총회가 개최될 예정임.

- 현재 9개국 51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4개 기관이 준회원으로 있음.

**\*\* 본 원고는 본인이 참여한 『건강도시 정책 건의서』의 내용의 일부를 포함함  
(미공개 문건)**